

# “섬마을 초등학교서 만든 그림책 ‘꿀벌 이야기’ 만나요”

비비비. 비비비비...  
유난히 작은 날개, 작은 덩치를 가진 꿀벌 ‘비비’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날갯짓을 해야한다. 금빛 날개를 가진 꿀벌 친구들 사이에서 비비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다. 그때 꿀벌들의 보금자리에 나타난 거대한 장수말벌 한 마리. 겨우 도망친 비비는 겁에 질려 깊숙한 숲 속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숲 속에서 만난 달콤한 꽃과 다정한 동물 친구들이 벌벌 떠는 비비를 위로한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숲 속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비비는 꿀벌 친구들을 만나 작전을 펼친다. 일명 ‘비비빅볼’ 작전! 다 함께 모여 비비와 친구들은 거대한 꿀벌 공을 만든다. 그리고 꿀벌들이 힘을 합해 공격하자 장수말벌은 결국 꽁무니 빼지게 도망친다.

작은 섬마을 초등학교서 꿀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이 최근 발간돼 화제다.

‘출동! 비비빅볼’은 작은 꿀벌 비비의 이야기를 통해 벌공(bee ball)·꿀벌 연합체가 말벌을 동그랗게 감싸 날갯짓의 뜨거운 열로 공격하는 방법) 등 꿀벌의 생태는 물론 지혜와 용기,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전한다.

책은 완도 소안초 교

완도 소안초교 문수지 교사, ‘출동! 비비빅볼’ 출간  
천진난만 아이들 상상력 담아 읽을거리·볼거리 선사  
한국문예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프로그램’ 도움

사인 문수지 작가가 글을 쓰고, 안진선 봄봄전답사가 그림을 그렸다.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50여분을 가야 하는 작은 섬 소안도에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력이 가미돼 완성된 작품은 읽을거리, 볼거리를 선사한다.

문 작가는 지난해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계기교육을 준비하던 중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꿀벌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같은 학교 동료 선생님과 협력해 환경 생태 그림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스토리 구성 단계부터 참여해 함께 비비의 도움을 고민했고, 동료 선생님들도 ‘비비빅볼’이라는 이름을 제공하는 등 ‘공동창작’의 과정을 거쳤다.

사실 문 작가와 소안초 학생들의 그림책 출판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복 해수육장’을 펴냈다. <1월 2일자 광주일보 24면> ‘전복 해수육장’은 학생, 주민과 나누고 학교 도서관에 배치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그림책 ‘출동! 비비빅볼’은 출판까지 이어졌다.

이번 발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기반시설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화됐다. 도서관 등 문학기반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문 작가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신일작은 도서관에서 방송희 아동문학 작가로부터 문학 공부와 동화 출판을 위한 과정 등을 배웠다. 덕분에 지난해 12월께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출판사와 연결돼, 상업출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장홍 출신인 16년차 교사 문 작가는 지난 2021년 광주교대에서 아동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동화 연구와 창작에 매진했다. 그는 “처음에는 연극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여러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중 장홍 문인모임에 합류하면서 문학, 특히 동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석사학위를 받은 후 완도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동화를 매개로 환경과 생태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림을 그린 안진선씨 역시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지만, 완도로 이사한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던 차였다. 그 역시 그림책에 섬마을 아이들의 순수함을 담는 한편, 작가로서의 경력도 활용할 수 있었다.

문 작가는 이제 꿀벌 비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 중이다. 역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다. “선생님,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사라져버린대요!” 아이들은 꿀벌의 생태와 중요성을 공부하며 점차 생각을 넓혀가고 있다.

문 작가는 “아이들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동물과 자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비비를 위해 꽃을 소중히 여겨야해’, ‘북극곰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 등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식물’ 북 콘서트·미니원화전

### 김금희 작가, 5일 ACC

“식물은 자기 상태에 대한 미움이나 비난이 없다.”

김금희 작가의 산문집 ‘식물적 낙관’은 자연의 색감은 물론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이 지닌 특유의 생명력이 곳곳에 담겨 있다. 김 작가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담대한 시선이 산문집에도 투영돼 있다.

김금희 작가 ‘식물’을 모티브로 한 북 콘서트와 미니원화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우, ACC)은 오는 5일 극장3에서 ‘ACC 도서관과 이야기: 식물 하는 마음 북토크’를 펼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전시 ‘ACC 도서관 미니원화전: 식물적 낙관 일러스트전’도 4월부터 두 달간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김 작가는 식물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 ‘대온실 수리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는 창경궁 대온실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한국 최초 유리온실인 대온실의 역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창경원에 간직한 이면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저자인 김금희 작가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소설집 ‘너무 한낮의 연애’를 비롯한 작품집을 펴냈다.

김 작가는 신동엽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대상, 오늘



김금희 작가. <ACC 제공>

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연계 프로그램인 ‘식물적 낙관 일러스트 전’은 표지와 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라키키가 그린 책 속 다양한 원화도 만난다.

김상우 직무대리는 “4월은 책과 관련된 ‘도서관 주간’ 등이 있는 날”이라며 “이번 북토크와 원화 전시를 통해 식물이 주는 다채로운 즐거움과 특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월의 상흔, 춤으로 전하는 위로

故 김영철 열사 딸 김연우씨 에피소드극 ‘별.빛 맞춤’

###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고(故) 김영철 열사의 딸이자 춤꾼 김연우씨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과 상처를 춤으로 풀어낸다.

춤과 춤꾼의 에피소드극 ‘별.빛 맞춤’이 오는 10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2025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별.빛 맞춤’이라는 제목처럼 죽은 자의 별과 산 자의 빛이 만나는 내용이다.

1980년 5월 당시 도청 최후 행정 시민군이었던 고(故) 김영철 열사의 딸 김연우씨가 작품의 안무·예술감독을 맡았다. 김연우 감독은 그린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남겨진 상처를 춤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춤을 중심으로 극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에피소드극 형태로 구성됐다. 김연우 감독 개인의 성장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자전적 에피소드는 공동체에 위로와 연



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우 감독은 “이번 작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체보다는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기억을 담았다”며 “작품을 통해 함께 서로의 5월을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2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김해성 개인전, 2~25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월하갤러리

있었다.

김 작가는 “30년 전부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하는 시도가 있어 왔으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본질적인 예술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이 존중될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은 새로운 예술성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꽃과 별, 새와 같은 자연의 생명들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도 여전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은 따스한 질감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 ‘친구들’, ‘축복의 날’은 각각 생에 있어 소중한 이들, 감격의 순간을 형상화했다. 생각만으로도 행

복한 주역들이다. 60대 중반 화가의 내면에 자리한 상징과 기호들, 이미지라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순수한 서정이다. 배경이 되는 보라색은 주제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작가는 말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고. 별날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잠깐 털어버리고 ‘꽃 세상’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월론 아트페어, 아트비어징 등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